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034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10일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신안 섬 주민 건강 지키는 23인의 '백의 천사'

간호사들 외딴섬에 1명씩 근무
24시간 섬 의료 책임자 역할
30년 이상 주민과 동고동락
고령자·주민의 건강한 삶 지켜
김우중상·대통령 표창 등 귀감

신안에는 외딴 섬마다 노인들을 돌보는 이웃 같은 백의의 천사가 있다. 이들은 낮 시간대 섬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물론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락망을 통해 대기하는 등 24시간 낙도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전남도내 공공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섬 중의 섬'이라 불리는 낙도(落島)에 근무하는 23명의 간호사가 신안 공공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화제다. 이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24시간 대기하면서 섬 주민의 건강을 살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23개 낙도 보건진료소에는 각 1명의 간호사가 배치돼 근무중이다. 신안군은 14개 본도와 23개 낙도를 지니고 있다. 간호사가 상주하는 낙도 중 인구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영산도로 37명이 거주하고 있다.

흑산도 부속 섬인 영산도와 만재도, 태도, 도초 우이도 등이 신안군의 대표적인 낙도다. 1004개의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경우 인구의 5명 중 2명 꼴(38.7%)로 65세 이상 고령자다. 하지만 의료 수요가 높은 낙도의 고령자들은 열악한 교통 여건 탓에 재가 방문이나 돌봄 서비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응급 상황에서는 닥터 헬기의 도움 없이는 섬을 벗어날 수도 없다.

23명의 간호사들이 있어 낙도의 고령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간호사들은 근무 시간 외에도 때때로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간호사 가운데 11명은 이미 50대를 지난 초로의 중·장년들로 상당수가 30년 이상 근무해왔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이 넘는다.

간호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육지에 있는 집에 가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을 속속들이 꿰뚫고 건강을 챙기는 보람을 느끼며 일에 임하고 있다. 이들 간호사는 진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족한 생활용품을 기꺼이 내어줄 정도로 '가족 같은 이웃'이 됐다.

신안의 한 낙도에서 헌신한 간호사는 지난해 '김우중 의료인상'을 받고 올해 4월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김우중 의료인상'은 고(故)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개인 재산을 털어 시작한 섬 오지 의료사업의 하나다. 지난 2021년 12월 대우재단이 제정한 이 상은 그늘진 곳에서 인술을 베풀고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의 '슈바이처'와 '나이팅게일'을 발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간호사는 "당연히 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상을 받은 것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박운기 보건소장은 "섬 간호사들은 평소 근면하고 성실하게 낙도에 근무해왔다"며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어르신들을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돌보는 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간호사들이 작은 외딴 섬에 혼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긍지와 사명감으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것이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격려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주 군 공항 유치 지역 1조원 통크게 지원한다

기존 지원액에 5500억원 추가
광주시 "공공기관 이전 약속"
전남도 "민간공항 이전해야"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유치 지역에 최소 1조원이 넘는 통 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유치지역이 희망하는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고 광주 공공기관 이전, 전남도와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지역 개발사업 지원 등도 약속했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군공항 유치 지역과 광주시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차액으로 마련하기로 한 지원 사업비 4508억원에 광주시 재원을 더해 최소 1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군 공항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태양광) 연금, 스포츠 아카데미(골프 등 스포츠 인재 양성기관), 항공 정비(MRO) 산단, 국제학교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유치 희망 지자체, 전남도, 중앙 부처와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강 시장은 약속했다. 광주시는 특히 유치 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명시하고, 가구·개인별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공 주택을 포함한 이주 단지, 영외 관사, 정주 시설 등을 집적해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도 조성한다.

광주시는 연간 5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광주시 공무원 교육원을 군 공항 유치 지역에 신축하는 등 공공 기관 이전 계획도 내놨다. 시는 이 밖에도 유치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광주시 등에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26일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에 최소 1조원이 넘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광주공항에서 아시아나 여객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 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지원방안은 특정 지역을 염두 하지 않은 큰 틀의 지원책으로,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지원 범위 등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면서 "군 공항 유치 지역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와 관련 유감과 불편한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의 지원방안은 전남도와 충분한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전남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지원 방안은 일정 부분 진일보했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민간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지원사업비 산출근거로 7년 전인 2016년 발표한 4508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가 2022년 재산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지역개발사업지원금도 1조원(4508억원+알파)이 아니라 1조원+알파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발표 내용에 대해 광주시와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광주시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전 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공항 부지 개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조748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